



4.9 총선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예비후보 집중탐구

최병훈



지역구 국회의원 법률과 정책 잘 만드는 정치지도자

포천지역 지역경제활성화가 최대 과제 교통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

약력 및 경력

- ▶성명 : 최병훈(48세)
- ▶출생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660-2번지
- ▶주요경력
 - 포천 초·중등학교 졸업
 - 포천 종합고등학교 입학
 - 서울 경신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헌법학)
 - ▶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현 고려대학교교우회 포천지부 회장
 - 현 국민승리연합중앙위원
 - 전 제17대 대신 한나라당 중앙 선대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 위원
 - ▶취미 : 등산
 - ▶가족관계 : 어머니, 아내, 2남
 - ▶평소소신 :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

분야별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1. 지역경제부흥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살리기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었고 그런 연유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포천지역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가 최고의 과제이며 현안문제로는 교통문제와 함께 물류비증대, 섬유나 가구와 같은 영세중소기업의 위생구조, 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관련법 등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제한, 재래시장의 침체, 군사보호구역문제와 미군반항공여지 개발문제 등이 있다.

우선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며 복지창출의 기초단위인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포천지역에는 섬유나 가구와 같은 영세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지원하고, 중소기업 투자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포천에는 많은 공장들이 지역생산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생산량의 70%가 외부에 유출되고 교통문제와 환경오염만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유지 임대, 보조금 지급, 진출입로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포천에 어울리는 IT업종·광고물 작성업·패션디자인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환경오염 감소·원가절감·포천시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

신기술 산업으로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 생물산업벤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1260여개의 소규모의 섬유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섬유업체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가구 제조업체수는 300여개로 제조업 전체비율에서 5.1%나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디자인개발·공정기술개발·마케팅능력 확보·고급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부흥

포천지역 생산량의 70%가 외부로 유출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악한 교통사정·교육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자녀교육을 위하여 직장과 거주지를 분리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결국 교육문제는 포천지역의 교통난과 지역경제 활성도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도 우수한 인적자원만이 가장 큰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창의력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그 해법 중에 농촌지역을 낙후지역에 '기숙형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 들어있다. 포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숙형 공립고·자율형 사립고 유치, 기존학교 집중육성, 특목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장학재단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한 장학사 유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확충, 장학제도 확대 등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대학유치는 낙후된 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자녀 교육문제 해결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한서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제2캠퍼스, 예원예술대 포천캠퍼스 등 대학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교통부흥

교통문제는 직장과 거주지의 분리로 인한 교육문제, 물류비증가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 가중 등 여러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확충은 포천시의 미래성장동력 성장 동력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리시 의회의 서울-포천민자고속도로건설반대와 같은 지자체간의 갈등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서울시

버스노선을 개혁했듯이 유능하고 강한 추진력·협상 및 조정력이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

현재 국도 43호선의 경우 포천시 송우리에서 의정부시 구간 20km를 출퇴근 하는데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선 전철 7호선 연장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의정부-포천-철원간 수도권 광역전철 연장 사업(54km)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의정부-포천간 BRT(간선급행버스) 구축을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기 수요에 대비해 군비행장을 이용한 지역공항 유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서울-포천민자고속도로건설은 관련자치단체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도43호선·국도37호선(전곡-영중간)등 주요간선도로 확포장사업, 포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택시승강장 설치·송우리 버스터미널 신축도 추진되어야 한다.

4. 관광산업부흥

포천시는 영평 8경(창옥병, 금수정, 와룡암, 선유담, 화적연, 백로주, 청학동, 낙귀정지)등 천혜의 수려한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레프팅과 절경이 아름다워 포천의 관광명소인 한탄강이 댐건설 발표로 한탄강 관광업계가 흔들리고 있고, 근래에 들어 산정호수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상 필수시설을 제외한 군관련시설과 군사훈련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포천시가 국제적인 친환경경관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코-디자인시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정책을 포천에 잘 접목시킬 새 인물이 필요로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5. 농업부흥

한·칠레FTA, 한·미FTA가 체결되고 한·EU FTA가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으며 포천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농민들에게 많은 농업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업관련 브랜드 사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포천쌀의 상표를 단일화하고 브랜드화 해야 하며,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고급육 브랜드화 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며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의 생태나 환경,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 나아가 영농체험까지 하는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한 농업 벤처회사인 고령지킴이를 만드는 '산정호수' (사당 장복기)와 같은 농업 바이오 벤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국제청소년 문화제 등을 적극 지원하여 포천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영상문화가 발달한 요즈음 포천에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포천시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 사회복지부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포천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장애인을 위한 관련 극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풍토 조성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천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즉, 포천시에 있는 많은 각종 단체와 중소기업들 그리고 각종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반영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구축사업을 해야 한다.

7. 문화예술부흥

포천지역에는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축제, 개성인삼축제, 포천시민의 날 행사,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등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이나 형태를 보완하거나 개선해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월에 집중되어있는 축제를 봄·가을·겨울 3계절로 분산 개최되도록 예산, 조직, 인력을 감안해 축제기간을 연장하여 내실을 기

하는 것이 좋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국제청소년 문화제 등을 적극 지원하여 포천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영상문화가 발달한 요즈음 포천에는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포천시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견해

오피니언 리더는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의 의미로서 인식한다면 포천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사인의 성질에 따라 중앙정부와 의사소통 및 협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경기도·포천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정부 또는 각 자치단체 간에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많은데 갈등만 있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국가가 우리 지역에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새로운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소통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장의 총 책임을 지고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야 하고, 시의회도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적 색깔은 달라도 좋을 수 있어도 지역현안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할 사항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여러분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권한을 위임받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사하시는 그 한 표 한 표의 귀중한 의미가 앞으로 4년 동안 잘 지속되도록 산중을 기해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시민의 대표는 국가 운영의 기본인 법률과 정책을 잘 만드는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저 자신을 희생하여 오직 시민의 편에서 서서 결순한 자세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꽃배달 서비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꽃 마을은 사랑입니다!



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생화
- 근조화환
- 사랑의 꽃바구니
- 동·서양란



꽃배달서비스
☎ 031) 534-9968

대표 김형도 / 포천시 신읍7동 175-8 / H.P 010-7170-6589